

## 全國民의 科學化를 위한

하여 輩出될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開拓者에게는 많은 苦難과 試鍊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一大轉換點을 맞아야 할 韓國의 教育史에 여러분들이 遂行하고 여러분들이 땀흘려 일한 보람은 오래 오래 남을 것입니다.

70年代 우리의 앞길에는 維新理念으로 굳게 뭉쳐진 國民總和의 힘으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 科學技術에 이르기까지 힘찬 成長과 前進이 期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의 참된 精神을 洞察하시고 우리들이야말로 이 運動의 先導者이며 이 運動에 點火役割을 遂行하여야 할 莫重한 使命을 지녔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全國教育者大會를 主管하신 文敎部當局과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深甚한 敬意를 表하며, 이大會를 契機로 全國의 坊坊曲曲에 科學化運動이 燎原의 불길처럼 번져가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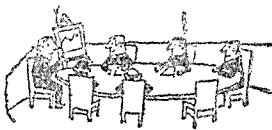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이시고, 여러분의 學校에 무궁한 發展이 있기를 비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感謝합니다.

1973年 3月 22日



## 세미나르와 심포지움의 差異



책을 한아름 거드랑이에 건學生이 敎授室문을 두드린다. 목소리만 나지막이 들렸던 교수는 문턱에 걸터앉아 피아프를 물고 물끄러미 밖을 내다 보고 있다. 學生은 책과 리포트를 펴 놓고 주어졌던 주제에 대하여 報告를 하기 시작한다. 교수 피아프에 불이 꺼졌다 보다. 학생은 얼른 성냥을 그어댄다. ▲학생은 다시 주뿔주뿔 무어라고 주위섬긴다. 그 건 學者의 의견이지 자네 의견은 아니야! 교수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섬겼던 學生은 다시 무어라고 더듬더듬 쳐꺼리기 시작한다. 그 점은 이렇게 생

각해 보는 것이 어찌나고 이번엔 敎授가 助言을 한다. 지난번 주어진 주제 때문에 밤새워 책 몇권을 읽어왔건만 다음 研究課題와 함께 몇가지 책이름이 지정된다. ▲이런것이 세미나르라고 들었다. 라틴語의 세미나리움의 語源이 세미나르의 語源으로 원은 苗板이라는 뜻이자 育成되는 것을 이름이다. 유럽에서는 世紀에 이런 教育方式이 비롯되어 初期에는 神學研究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神學校를 가리키게 되고 大學의 演習에서 나아가 研究室을 부르는 말이 되었다. 어쨌든 敎授의 指導에 의한 學生들의 共同研究 활동을 말하는 것. ▲또 심포지움은 그리스語의 쉼포시아(함께 술마시는 일)와 쉼포지온(饗宴會)에서 라틴語의 심포지움이 된것으

로 애초엔 食後에 音樂 舞蹈 談話를 즐기는 것을 가리켰으나, 플라톤의「對話」에 饗宴篇이라는 것이 있고 보면 知識과 思想을 서로 批判하고 論究하는 모임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이를테면 生活이나 學術에 관한 重大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이라도 좋고, 雜誌의 共同討論이라도 좋다. ▲그런 세미나르나 심포지움이 어느새 大學과 긴지한 討論場을 떠나 거리로 흘러나왔다. 이름은 어엿하지만, 主題도 貧困한데다 身邊賢事비슷한 얘기가 오가고 때로는 똥똥지같은 소리가 튀어 나오고 나중에 饗宴만은 꽃이 피는 세미나르와 심포지움, 정작 大學研究室에서는 자취를 감춘 세미나르가 이렇게 大衆民主化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